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 금주의 GVC Insight



#### 최신 GVC 해외 이슈

**【에너지, 유럽】** 러시아 프랑스 가스 공급 중단 통보, 유럽행 카자흐 송유관 가동 차질

**【원자재, EU】** EU, '원자재법(RMA)' 도입으로 자원 맵핑을 통한 역내 생산체계 구축 및 공급망 강화 노력

**【식량, 인도】** '식량 안보' 고삐 죄는 인도, 밀·설탕 이어 쌀(싸라기) 수출 제한 검토

**【유리, 유럽】** 유럽 에너지 위기, 유리 생산도 위협, 대책 마련에 나선 자동차·주류 업계

**【비료, EU】** EU 비료업계, 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차질에 대체 공급원 확보 주력

**【원유, 러시아】**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대비 위해 아시아 국가 대상 장기공급 가격 30% 할인 제안

**【에너지, 일본】** 미쓰비시상사와 미쓰이물산, 러시아 「사할린2」 프로젝트 지분 유지 결정

**【수소, 독일·캐나다】** 에너지 위기의 독일, 캐나다 그린수소 조달 합의, 당장의 LNG 조달에는 실패

**【에너지절약, 독일】** 독일 공공건물 에너지 절약 규정 승인



#### GVC 뉴스 더하기

- ① 폴란드에 대규모 방산 수출 실행계약 체결
- ② 일본,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해 원전 신·증설 검토



#### GVC 기초상식

선박과 운임지수의 종류 2편 - 선박 용어



#### GVC 돋보기

우리나라의 식량 공급구조



#### GVC 전문가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 김희영(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특별기고(전략물자관리원)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1편 (Inbound)



#### GVC 소식통

- ①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사업 안내
- ②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세미나 개최 소식

## 최신 GVC 해외 이슈

### ● [에너지, 유럽] 러시아 프랑스 가스 공급 중단 통보, 유럽행 카자흐 송유관 가동 차질

-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社は 프랑스에 공급한 7월분 가스의 대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9.1일부터 미납된 가스 대금을 받을 때까지 프랑스로의 가스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통보
  - 프랑스는 EU 회원국 중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낮은 편이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올겨울 에너지 대란을 대비하고자 대통령 주재 에너지 대책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 배급제 등 검토 중
  - EU 에너지 장관들은 다음달 9일 체코에서 에너지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발전에 사용되는 가스요금 상한제와 전력시장 구조 개혁 등 논의 예정
  -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은 천연가스가 전기 가격을 지배하고 있다며 가스-전기 가격간 탈동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가스와의 연동성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의 연동성은 높이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시사
- 러시아가 유럽행 에너지 공급을 줄인 가운데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공급하는 송유관 가동이 차질을 겪으면서 에너지난 우려가 커지는 중. '캐스피언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은 전날 흑해 수송터미널에 있는 계류지점 3곳 중 2곳이 시설 파손으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확인
  - 금번 조치는 러시아 가스프롬이 8.31일부터 사흘간 '노르드스트림1'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은 것으로, CPC는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1%를 담당하며 러시아 국영 송유관 회사인 트란스네프트가 최대 주주
  - 로이터통신은 'CPC는 지난 6개월간 여러 차례 수출량을 줄였고, 이달 초에도 유전지대 유지보수를 이유로 공급량을 줄인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유전 지대 유지보수가 끝나 생산량 회복시 송유관 가동 차질 우려가 있다'고 보도

출처 : 연합뉴스(22.8.23), 로이터(22.8.22), SBS(22.8.31), YTN(22.8.31) 등 언론보도 종합

### ● [원자재, EU] EU, '원자재법(RMA)' 도입으로 자원 맵핑을 통한 역내 생산체계 구축 및 공급망 강화 노력

- EU는 역내 자원 생산 및 중요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협상력(bargaining power) 강화를 위해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도입을 추진할 계획
  - 유럽은 현재 권역 내 심도있는 자원 맵핑을 실시하는 중으로, 원자재법(RMA) 도입을 통해 중요 자원 역내 생산 및 자원 공급망 관련 협상력을 강화할 계획
-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미래 유럽의 경제적 위상이 친환경·디지털 등 미래 기술경쟁 주도권 강화에 좌우된다고 강조하며, 리튬(배터리)과 영구자석(풍력발전) 등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요 원자재 공급망의 중요성 강조
  - 프랑스 스웨덴 등 전·현직 EU 이사회 의장국들은 9월 발족하는 원자재 공급망 워킹그룹에 각 회원국 대표의 참석을 독려하는 중이며, 워킹그룹에서는 회원국별 공급망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안 논의 예정
- 한편, EU 집행위는 지난 7월 15개 EU 회원국 35개 기업이 참가한 41개 프로젝트에 대해 IPCEI\*를 통한 총 54억 유로 규모의 자금 지원을 승인한 바 있음
  - \*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 복수 회원국의 전략적 산업 섹터에 EU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 배터리·반도체 등 중요 전략산업 섹터를 주로 지원하는 사업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8.27)

### ● [식량, 인도] '식량 안보' 고삐 죄는 인도, 밀·설탕 이어 쌀(싸라기) 수출 제한 검토

-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밀, 설탕 등에 이어 동물 사료나 에탄올 제조 등에 사용되는 부스러진 쌀알(싸라기)에 대한 규제 논의 중. 다만, 쌀 수출 전반에 대한 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인도 당국 관계자는 '민간이나 정부 모두 쌀 재고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힘. 8월 초 인도 쌀 재고는 4,100만 톤으로 필요 물량보다 1,350만 톤 상회
  - '21년 인도의 쌀 수출량은 2,150만 톤으로 세계 쌀 수출의 40% 차지. 그 중 360만 톤이 싸라기 수출이었으며, 주요 싸라기 수입국은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임
- 인도 정부가 싸라기 수출 제한을 고려하는 이유는 쌀 생산량 1위 국가 중국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및 국내외 쌀 가격의 상승과 올해 인도의 예상 쌀 생산량 감소라는 분석 존재

- 인도는 현재 문순 우기 중이지만 웨스트벵골주, 비하르주, 우타르프라데시주 등 일부 주요 쌀 생산지는 강수량이 부족한 상황. 인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논 면적은 3,437만 헥타르로 '21년 대비 8.3% 감소
- 최근 자국 식량 안보를 이유로 잇따라 곡물 등 식품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인도는 '08년에도 베트남과 함께 쌀 수출을 제한하여 쌀 가격이 급등한 바 있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에 각국의 식량 위기와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인도의 '식량 보호주의'에 대해 비판
  - 베트남은 세계 2위 쌀 수출국으로 '21년 600만 톤 규모의 쌀 수출

출처 : 한경(22.8.27), 블룸버그(22.8.26) 등 언론보도 KOTRA 서남아지역본부 종합

### ● 【유리, 유럽】 유럽 에너지 위기, 유리 생산도 위협, 대책 마련에 나선 자동차·주류 업계

- EU가 회원국 정부에 '에너지집약 산업 가스 절약 및 가스 배급제를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비상계획을 주문한 가운데, EU집행위는 올 겨울 천연가스 공급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산업 목록에 유리 제조업 포함
- 유리 제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집약 산업으로 러시아의 유럽 가스공급이 중단될 경우 유리 생산이 어려워지고, 유리가 필수적인 자동차·주류업계의 수급 위기가 우려됨.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가스 대란은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유리 부족 사태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
  - 유리는 규사, 소다회, 석회석 등을 고온에 녹여 만들며, 유럽에서는 유리 제조과정에 필요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중
  - 13세기부터 유리 제조의 중심지였던 베네치아 무라노섬은 가스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900% 상승하여 대형 조각품, 샹들리에 등의 생산을 줄인 바 있음
- 일부 유리업체는 에너지를 가스에서 석유 또는 디젤로 전환 중이며, 대형 제조업체의 경우 천연가스 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힘
  - 유리가 필수품인 회사들은 높은 비용을 들여 재고를 비축하는 중. 독일 자동차 업계는 유럽 역외로 공급망을 확장하여 차량용 유리 재고를 비축하고 음료 업계는 병의 재활용 횟수를 연장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 고려 중

출처 : WSJ(22.8.27), 한국경제(22.8.28), 이데일리(22.8.28) 등 언론보도 종합

### ● 【비료, EU】 EU 비료업계, 가스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차질에 대체 공급원 확보 주력

- 러시아산 가스가격 급등으로 비료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EU와 비료업계는 대체 비료 공급망 확보에 분주
  - EU 전체 비료 수입량의 60%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가스 제재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운송·보험료가 급등하고 수입 단가도 급격하게 상승
  - 특히, 지난달 발표된 6차 제재의 일환으로 벨라루스 탄산칼륨(potash) 수입이 금지되면서 비료 공급난 가중
- EU 집행위는 대체 공급망 확보, EU 역내 생산 증대 등 러시아 비료 의존도 완화를 위한 계획 수립 중
  - 집행위는 지난 3월 식량 안보 및 식품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해 5억 유로의 농가 특별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곡물 등 판매 가격 상승이 EU 농가의 비료 구매 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비료의 대체 공급원으로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공 등이 지목되고 있으나, 기존 러시아 및 벨라루스 공급망을 대체하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
  - EU 인산염(phosphate) 수입의 40%를 공급하는 모로코가 향후 비료의 주요 대체 공급원으로 거론되나, 50% 생산량 확대에는 약 4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또한, 2017년 아프리카연합에 가입한 모로코는 아프리카 지역 내 정치적 입지 확대를 위해 비료의 무상 또는 저가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 EU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

출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8.26)

### ● 【원유, 러시아】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대비 위해 아시아 국가 대상 장기공급가격 30% 할인 제안

-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들에 석유 장기공급계약을 조건으로 공급가의 최대 30% 할인을 제안하였음. 이는 G7이 추진 중인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상

- G7은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러시아 원유판매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유 가격상한제 추진 중 → 러시아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유럽 수출물량을 대신 소화해 줄 고정 고객 필요
  - 가격상한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설정 가격 이상의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선박에 대해 국제보험업계가 운송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 거론
- 아시아 국가 중 가격상한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나라는 거의 없으며, 특히 할인된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적극 사들이고 있는 인도는 동참을 꺼리는 분위기. 주요 아시아 수입국들이 불참할 경우 가격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아시아 주요국 설득 노력 중
- 美 재무부 장관은 8.24일 뭄바이 행사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위한 국제 연합체가 외연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국가가 이에 동참했다고 강조

출처 : 연합뉴스(22.8.25) 등 언론보도 KOTRA 모스크바무역관 종합

### ● [에너지, 일본] 미쓰비시상사와 미쓰이물산, 러시아 「사할린2」 프로젝트 지분 유지 결정

-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와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이 러시아 극동 에너지 개발사업인 「사할린2」의 새로운 러시아 법인에 합류하기로 최종 결정
  - 러시아는 8월 「사할린2」의 운영을 신규회사인 사할린에너지LLC에 이관하고,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상사에 프로젝트 지분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구한 바 있음
- 두 회사는 러시아 측에 주주로서의 권리와 이익 유지를 희망함을 최종 통보할 계획이며, 러시아 정부는 통지받은 후 3일 이내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언급
  - 현재 러시아 측은 일본에 불리한 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건을 변경할 경우 일본 기업의 사업 유지가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음

출처: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8.29)

### ● [수소, 독일·캐나다] 에너지 위기의 독일, 캐나다 그린수소 조달 합의, 당장의 LNG 조달에는 실패

-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는 8.24일, 캐나다 순방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만나 양국 친환경 그린수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수소 동맹' 방침 발표
  - 솔츠 총리는 캐나다의 LNG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타진했으나, 트뤼도 총리는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독일로의 직접 수출 가능성에는 난색을 표함
- 양국은 '30년 이전에 대서양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25년 첫 공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독일은 '45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목표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이 어려운 부문에 그린수소를 투입할 예정
  - 그린수소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 →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음

출처 : 연합뉴스(22.8.24), 환경(22.8.24), 조선비즈(22.8.24) 등 언론보도 종합

### ● [에너지절약, 독일] 독일 공공건물 에너지절약 규정 승인

-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9.1일부터 6개월간 공공건물 난방을 제한하고 광고판 조명을 금지하는 등 에너지절약 규정 승인
  - 시청 건물에서부터 철도 승객 대기실에 이르는 각종 공공건물의 난방온도를 섭씨 19도로 제한, 건물 복도와 로비, 입구 통로 등의 난방기는 모두 소등, 미관상 밝히는 건물 외관이나 기념물 조명 중단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량을 감축하여 최근 가스 가격이 급등한 바 있음. 특히, 독일은 유럽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현재 여러 도시가 자체적으로 여러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중
  - 독일은 가스난방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매년 의무 검사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법규를 추가로 제정할 계획

출처 : 연합뉴스(22.8.25), 서울신문(22.8.25) 등 언론보도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종합



## GVC 뉴스 더하기 ① : 폴란드에 대규모 방산 수출 실행계약 체결

※ 지난 7월 27일(현지시각)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한국산 무기 3종을 대거 사들이는 **기본 계약(Framework Agreement)**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한 데 이어, 8월 27일 K2 전차(4조 4,992억원 규모)와 K9 자주포(3조 2,000억원 규모) 수출실행계약을 체결했음

### ● 기본계약 체결(7.27)

-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국산 무기 3종에 대한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 체결

→ 총 사업 규모 26조원, 지원 차량이나 탄약 등을 포함하면 약 40조원의 초대형 기본계약

- 기본계약은 폴란드 절차상 향후 진행될 개별 실행계약 체결 이전에 하는 계약으로, 사업 예산을 설정하기 위한 총 물량과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의미함

#### < 기본계약 체결 내용 및 3종 무기 주요 제원 >

K2 전차	K-9 자주포	FA-50
		
<b>980대</b> (약 18조 원)	<b>648문</b> (약 4조 원)	<b>48대</b> (약 3.8조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이 10.8m</li> <li>■ 폭 3.6m</li> <li>■ 높이 2.4m</li> <li>■ 중량 55t</li> <li>■ 비포장도로 속도 50km/h</li> <li>■ 잠수도하깊이 4.1m</li> <li>■ 승무원 3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이 12m</li> <li>■ 폭 3.5m</li> <li>■ 높이 3.3m</li> <li>■ 중량 47t</li> <li>■ 최대속도 67km/h</li> <li>■ 최대사거리 40km</li> <li>■ 승무원 3~5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이 13.1m</li> <li>■ 폭 9.5m</li> <li>■ 높이 4.8m</li> <li>■ 중량 6,480kg</li> <li>■ 최대속도 마하1.5</li> <li>■ 최대상승고도 1만6,760m</li> <li>■ 승무원 2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180대 → '22~'25년 공급</li> <li>* 22년 연말까지 10대 공급계획</li> <li>▲ 2단계: 800여대 → '26~'30년 공급</li> <li>* 폴란드 최적화 K2PL전차 현지 생산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48문</li> <li>* 22년 연말까지 24문 공급 계획</li> <li>▲ 2단계 600문 수출('24~'30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중반부터 총 48대 도입 예정</li> <li>▲ '28년 사업 완료 예정</li> </ul>

### ● 실행계약 체결(8.27)

- 실행계약에는 1·2차 인도분에 대한 세부사항(납기, 상세사양, 교육훈련, 유지보수 조건 등) 명기

- (K2 전차) 현대로템은 폴란드 모롱그 지역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긴급요구가 발생한 1차 인도분 180대(4조 4,992억원 규모)에 대한 세부조건이 포함된 K2 전차 수출계약을 맺음

\* 2022 ~ 2025년간 K2 전차 180대 공급

- (K9 자주포) 한화디펜스는 폴란드 모롱그 지역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212문(3조 2,038억 원)에 대한 세부조건이 포함된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맺음

\* 계약기간은 '22.8.26 ~ '26.9.30일

## GVC 뉴스 더하기 ② : 일본,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 원전 신·증설 검토

※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원전 신·증설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발전 최근 동향 및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방향 등 쟁점을 살펴보자

### ●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신·증설 논의 배경

- 일본 정부는 '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지해왔던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방침을 전환하여 차세대형 원전 개발에 나서고 있음.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멈춰있던 원전 7기도 재가동 전망
  - 日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8.24일 脫탄소 정책을 논의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회의'에서 "차세대 혁신 원전 개발·건설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연말에 구체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하라"고 지시
  - 또한, 기시다 총리는 현재 가장 60년\*인 원전 운전기간을 연장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
- \* 법에 따라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운전 개시로부터 40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0년 연장 인가를 받을 수 있어 가장 60년 운전 가능
-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3.1월 대다수 지역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 예비율 3%를 확보하지 못할 전망'이며,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최근 러-우 사태로 에너지 가격까지 급등하자 원전 정책 전환을 모색하게 된 것으로 보임
  - \* 도호쿠·도쿄 전력예비율 1.5%, 추부·호쿠리쿠·칸사이·츠후고쿠·시코쿠·큐슈 1.9% 전망 ← 탈탄소화 추진에 따른 노후 화력발전 폐지, 원전 재가동 지연, 지진 등 자연재해 다발로 인한 전력 공급 저하, 예상을 웃도는 기상상황 등이 원인

### ● 일본 원자력 발전 현황

- 일본에는 현재 33기의 원자로가 있으며, 건설 중인 3기 포함시 총 36기 보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가동 정지 이후 25기가 정부에 재가동을 신청했으나, 현재 운전 중인 원전은 7기\*(22.8.9일 기준)
- \*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합격 후 지역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기 재가동 → 3기는 정기점검 등으로 정지 상태

<일본 원자력 발전소 현황(22.8.9일 기준, 경제산업성 자료)>



- 일본 정부는 그 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에 합격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안전대책 공사가 늦어져 아직 재가동하지 않은 원자로 7기를 내년 이후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
- 일본의 원자력발전 비중은 3.9%(20년 기준) 수준이며, 일본 정부는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30년 원자력발전 비중 20~22%'를 목표로 설정. 원자력 발전 비중 20%는 원전을 20기 이상 가동하는 규모

●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관련 로드맵 초안 공개

- 8.9일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원자력소위원회에서 전문가실무그룹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전보장 실현을 위한 혁신로 개발기술 로드맵(안)' 보고
- 로드맵에서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대응 과제로 ①개발 관련 방향성 명료화, ②예산·시설 정비, ③사업환경 정비, ④사령탑 기능 강화, ⑤공급망 유지·강화 제시 → 경제산업성은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공급망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검토 예정
  - 로드맵에 따르면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을 높인 개량형 경수로(혁신 경수로) 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
  - 경수로는 감속재와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글로벌 주류 원자로로, 기존 기술이나 안전대책의 연장선상에 있어 기술적 성숙도가 가장 높고 일본 내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어 차세대 원전 중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일본 차세대 원자로 종류별 개발 추진 일정(안)〉

종류	특징	운전 개시
개량형 경수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심 냉각에 물을 사용, 안전대책을 종래의 연장선상에서 활용할 수 있음</li> <li>• 원자로 제조사는 기존 경수로보다 내진성을 높여 항공기가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성능과 노심 냉각으로 다수의 수단을 갖춘 원자력 발전 개발 중</li> </ul>	상용로 '30년대
소형 모듈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출력이 100만kW인 경수로보다 낮아 사고 발생시 냉각 용이</li> <li>• 소형으로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 미국 및 유럽에서 개발이 선행되고 있음</li> <li>• 일본 내 규제 기준 X, 소규모로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도입에 시간 소요 전망</li> </ul>	실증로 '40년대
고속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한 연료로 발전하여 핵폐기물 저감 가능</li> <li>•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잠재적 유해도가 자연계 수준으로 저감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핵연료 사이클에 필수적이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음</li> </ul>	실증로 '40년대
고온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륨가스를 이용해 냉각하고 냉각 기능이 손실되어도 연료가 녹지 않으며, 9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수소 제조도 가능</li> <li>• 물이 아닌 헬륨가스로 냉각하여 수소폭발 X, 방열에 의한 자연냉각도 가능한 원자로</li> </ul>	실증로 '30년대
핵 융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 원자가 핵융합할 때의 에너지를 활용하며, 사고 시 열 발생이 신속하게 멈춤</li> </ul>	실증로, 상용로 모두 '50년 이후

(자료) 일본경제신문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8.9일 로드맵(안) 보고 당시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이라는 정부 기존 방침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존재했으나, 8.24일 기시다 총리의 '차세대형 원자력발전소 개발 건설 검토' 지시로 일본 정부의 원전 활용 방침이 명확해짐
  - 한편, 아사히신문이 8.27~28일 18세 이상 유권자 998명(유효 응답자 기준)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 신·증설 반대가 58%로 찬성 34%를 크게 웃돌았음
- 일본 원전 신증설·재건축 논의에 주목하며 양국 원자력 업계간 상호 보완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내 원전 프로젝트 참여, 차세대 원자로 개발 협력, 제3국 공동진출 가능성 등 모색 필요
  - 일본의 경우 산업 기반이 부족한 영국 등의 개량형 경수로 건설에 참여 가능하고, 고속로·고온가스 공급망이 확립되지 못한 미국, 영국, 폴란드 등과 개발 협력 가능



## GVC 기초상식: 선박과 운임지수의 종류 2편 - 선박 용어

※ 선박은 세계 물류의 85%,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9억5500만톤)를 차지하는 중요한 운송 수단임. 글로벌 물류의 핵심 운송 수단인 선박의 종류와 용어, 해상운임지수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선박과 운임지수〉

25호: 선박의 종류
26호: 선박 용어
27호: 해상운임지수

### ● 주요 선박 용어

- 글로벌 물류에서 선박 관련 용어는 **크기(부피·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와 선박의 형상(길이·너비·높이)을 나타내는 단위**가 주로 사용됨

구 분		내 용	비 고
크기 (ton)	총톤수(Gross Tonnage)	선박의 부피를 무게로 환산한 단위(부피단위)	GT
	재화중량(Dead Weight Tonnage)	선박에 적재하는 화물중량(무게단위)	DWT
	보정톤수(Compensated GT)	GT에 실질적인 작업량을 보정한 수치	CGT
TEU(Twenty feet Equivalent Units)		20ft 길이의 컨테이너를 나타내는 단위	TEU
형상 (LBD)	전장(Length Overall)	선박의 선수에서 선미까지의 수평거리	LOA
	형폭(Breadth Molded)	외판두께를 제외한 선박의 폭	B
	흘수(Draft)	화물적재시 선체가 해수에 잠기는 높이	T
	형깊이(Depth Molded)	선체중앙부에서 기저선과 갑판의 높이	D

### ● GT(Gross Tonnage, 총톤수)

- 선박 내부 밀폐된 공간의 용적을 측정한 후 **용적을 중량으로 환산**( $100ft^3 \rightarrow 1GT$ )한 수치로, 톤이라 표현되어 있음에도 무게 단위가 아니라 **부피 단위**임
- 선박의 관세, 등록세 및 검사수수료, 항만시설 사용료 등 산정의 기준이 됨
  - $GT(\text{Gross Tonnage, 총톤수}) = \text{외부와 차폐된 모든 공간의 용적} \div 100ft^3$  (1GT는 대략  $1m \times 1m \times 3m$ )
  - NT(Net Tonnage, 순톤수)는 외부와 차폐된 공간 중 영업용 목적으로 설정된 공간, 즉 승객과 화물만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의 용적을  $100ft^3$ 로 나눈 값

### ● DWT(Dead Weight Tonnage, 재화중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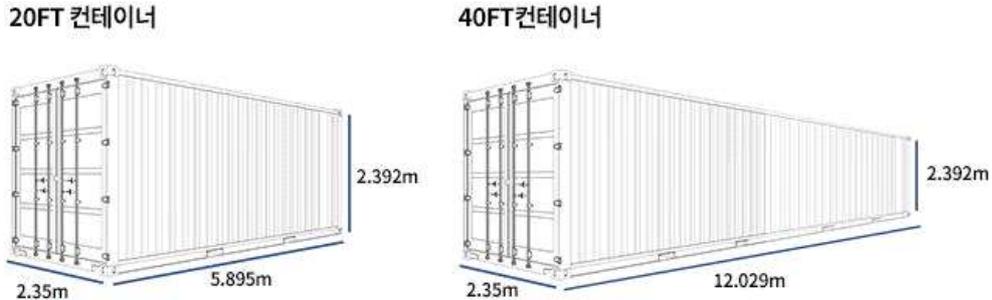
- 선박이 가라앉지 않고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중량의 한계**를 의미하며, 선박이 얼마나 무거운 중량(화물 외에도 탑승선원들, 연료 등의 중량도 포함)을 수송할 수 있는지 배의 성능을 나타내주는 척도
- $DWT(\text{재화중량}) = DISPT(\text{재화배수톤}^*) - LDT(\text{경화배수톤}^{**})$ 
  - \* 재화배수톤(DISPT, Displacement Tonnage) : 화물을 실은 선박의 총 중량(선박 + 화물 무게)
  - \*\* 경화배수톤(LDT, Light Displacement Tonnage) : 선박 자체만의 중량(선박 무게)

### ● CGT(Compensated GT, 보정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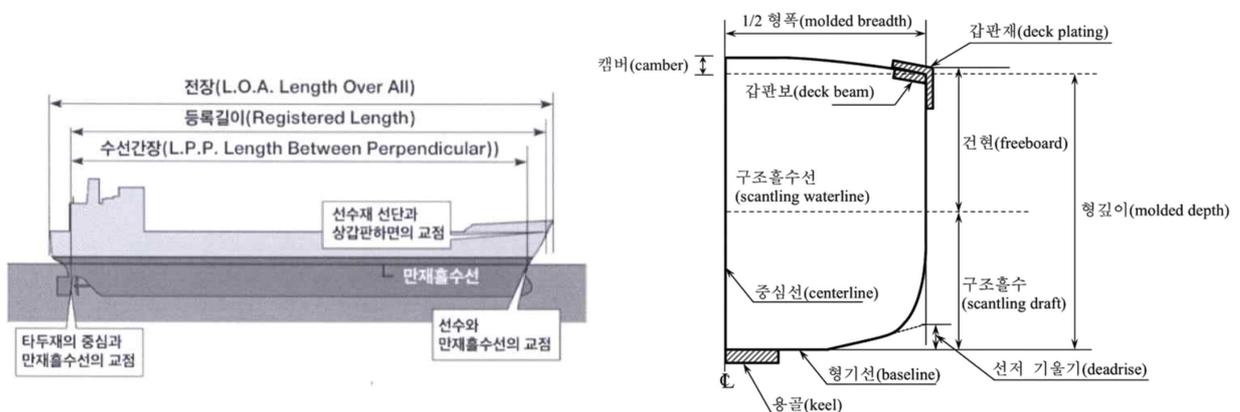
- 조선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톤수로 선박이 복잡·다양해지면서 GT 단위만으로는 **선박의 크기 및 가치, 작업난이도 등을 평가하기가 곤란**해짐에 따라 만든 단위로, **GT에 CGT계수\*를 곱해서 구함**
  - \* 1만 GT, 1.5만 DWT 일반화물선의 1GT당 건조에 소요되는 가공 공수(工數)를 CGT계수 1.0으로 정함  
→ 대형선으로 갈수록 CGT계수가 작아지고 장비가 복잡한 선박으로 갈수록 CGT계수가 커짐
- $CGT(\text{Compensated GT, 보정톤수}) = GT(\text{Gross Tonnage, 총톤수}) \times CGT\text{계수}$ 
  - \* 일반화물선의 CGT계수는 1.0, 여객선의 CGT계수는 2.0이므로 총톤수(GT)가 같아도 보정톤수(CG)는 다름

● TEU(Twenty feet Equivalent Units)

- TEU는 컨테이너 운반선에 선적할 수 있는 총 컨테이너(20ft)의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
  - \* 20ft 컨테이너 : 폭 8ft(2.438m) × 높이 8.6ft(2.62m) × 길이 20ft(6.096m)
- 40ft 컨테이너에 포장하여 운반하는 경우 FEU(Forty feet Equivalent Units) 단위 사용
  - \* 40ft 컨테이너 : 폭 8ft(2.438m) × 높이 8.6ft(2.62m) × 길이 40ft(12.192m)



● 선박의 형상 관련 용어 - 전장, 형폭, 흘수, 형깊이



- 전장(LOA, Length Over All)은 선박의 길이 의미(선수의 최전단에서 선미 돌출부의 최후단까지의 수평거리)
  - 안벽(Quay) 계류, 운하 통과, 조선소 수리를 위한 입거(Docking) 등에 고려
    - 안벽(Quay)이란 항만이나 운하의 가장자리에 배를 정박하기 좋게 쌓은 벽을 의미함
- 형폭(Bmld, Molded Breadth)은 선박의 너비 의미(선체의 가장 넓은 부분에서 측정한 좌우현 내측간 수평거리)
  - 전폭에서 외판의 두께를 뺀 너비로 적재 가능한 화물 부피 산정, 운하 통과 등에 고려
    - 전폭(Bext, Extreme Breadth)은 선체의 가장 넓은 부분에서 측정한 좌우현 외판 바깥면간 수평거리 의미 → 운하를 통과하거나 수리를 위한 도크 입거시 고려되는 선박의 폭
- 형깊이(Molded Depth)는 선박의 높이 의미(선체의 중앙 갑판재 상단에서 선박 용골(Keel) 상단까지의 수직거리)
  - 적재 가능한 화물 부피 산정, 운하 통과 등에 고려
    - 형깊이 = 구조흘수(Scantling Draft) + 건현(배에 짐을 가득 실었을 때 수면에서 갑판재까지의 길이)
- 흘수(Draft)는 선박이 물속에 잠기는 깊이 의미 → 화물선은 한번 항해를 시작하면 수개월간 바다위를 오가기 때문에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화물을 싣도록 하는데 이 기준이 흘수로 결정
  - 선박의 최대 흘수(Draft)를 만재흘수(Full Load Draft) 또는 구조흘수(Scantling Draft)라 함

## GVC 돋보기: 우리나라의 식량 공급구조

※ 집 앞 마트에서, 미국산 밀가루로 만든 과자와 필리핀산 바나나를 사 먹던 우리는 이제 그렇게 당연했던 '식량 공급망'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식량 위기에서 안전한가?

### 〈식량 시리즈〉

24호: 식량 안보와 식량보호주의
25호: 국제 식량 공급망
26호: 우리나라의 식량 공급구조

### ● 우리나라 식량·곡물 자급률

- 우리나라의 식량·곡물 자급률은 지속 하락하는 추세이며,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1970년대 식량과 곡물 자급률 모두 80% 상회 → 현재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은 20.2%에 불과
- \* 식량은 사람이 섭취하는 곡류, 곡물은 사람과 동물이 섭취하는 곡류 의미
-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세계 172개국 중 130위, OECD 38개국 중 33위 수준 (일본 농림수산성 해외 곡물자급률 통계, '18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곡물자급률 추이〉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 우리나라 식량·곡물 공급망 특성

-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크게 의존

- 국내산 식량·곡물 소비 비중은 1% 이하 (소맥(0.1%), 옥수수(0.1%), 대두유(1.1%), 팜유(0.0%))
- 수입산 소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국내산 가격 경쟁력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

〈주요 식량 품목별 수입 이유('20)〉 (단위: %)

품목	수입산 사용 이유			
	국내산은 일시에 대량 납품받을 수 없어서	국내산은 원가가 높아 가격경쟁이 안 돼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재료라서	기타
소맥	17.8	46.1	11.0	25.0
옥수수	32.1	46.7	6.7	14.5
팜유	12.7	38.6	39.0	9.7
대두유	11.9	62.1	7.5	19.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21)

- 주요 식량이 모두 특정 국가 중심의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

- 수입량 상위 3개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소맥(79.3%), 옥수수(76.9%), 팜유(99.3%), 대두유(93.0%))

〈우리나라 주요 식량 수입국 순위 및 비중〉 (단위: %)

소맥			옥수수		팜유		대두유	
1	미국	37.4	미국	36.5	인도네시아	51.8	미국	65.6
2	호주	29.4	아르헨티나	24.0	말레이시아	47.0	아르헨티나	19.1
3	우크라이나	12.6	브라질	16.3	파푸아뉴기니	0.5	베트남	8.3
4	캐나다	7.8	우크라이나	5.6	미국	0.3	벨기에	2.1
5	불가리아	3.9	러시아	5.0	캄보디아	0.2	독일	1.1

주: 최근 5년(2017~2021년) 수입량 합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GVC 전문가: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 김희영(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최근 EU는 그린딜 정책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 배터리 여권 도입, △ 탄소발자국 공개, △ 배터리 소재 재활용, △ 공급망 실사 의무 시행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20.12 발표)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우리 전기차배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EU 배터리 규제안과 배터리 여권에 대해 살펴보자

### ● EU 배터리 규제안 개요

- EU는 그린딜 정책과 순환경제 실현<sup>1)</sup>을 위해 배터리 규제안(20.12 발표) 법제화 과정 진행 중 → △ 배터리 여권 도입, △ 탄소 발자국 공개, △ 배터리 소재 재활용 의무비율, △ 공급망 실사 의무 등 포함

#### 〈EU 배터리 규제안 주요 내용(전기차 배터리 관련\*)〉

※ 규제 범위가 전기차(EV) 배터리 이외에 E-Bike 및 E-Scooter 등 LMT용 배터리까지 확대(22.2.10)

- ① 탄소발자국 공개(24.7~) : 탄소 발자국 분류, 관련 라벨링 보완(26~),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27~) 도입
- ② 재활용 원료 함유량 공개(27~) : 코발트, 리튬, 니켈 및 납의 최소 재활용 사용 비율\*(30~) 명시  
\* (30~) 코발트 12%, 납 85%, 리튬 4%, 니켈 4% → (35~) 코발트 20%, 납 85%, 리튬 10%, 니켈 12%
- ③ EV 배터리 생산·수입 사업자의 공급망 실사 의무  
\* 원자재 소싱에 따른 탄소 발자국 및 재활용품 의무 사용 준수에 대해 제3자 검증 의무화
- ④ 재활용 물질 사용 목표치\*(효율) 설정  
\* (~25) 코발트, 구리, 납, 니켈의 90%, 리튬의 35% 이상 → (~30) 코발트, 구리, 납, 니켈의 95%, 리튬의 70% 이상
- ⑤ 재활용 배터리 사용 촉진을 위해 배터리 용도 변경 및 재제조 허용
- ⑥ 라벨 및 정보 제공(27~) : QR코드를 이용한 배터리 정보 제공  
\* 수명, 충전, 용량, 위험 물질 포함 여부, 안전 및 위험 관련 정보  
\* 배터리 상태 및 예상 수명 정보, 배터리 관리시스템 정보  
\* 배터리 소유자 및 사업자에게 정보 공개 (배터리 재사용 여부, 용도변경 및 재제조 이력 등)
- ⑦ 배터리 여권(전자 기록) 도입 및 배터리 정보의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26~)

### ● EU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sup>2)</sup>

- 배터리 여권 규제가 발효되면 2026년부터 거의 모든 산업용·자동차용 배터리는 '배터리 여권'을 부착해야 함 → EU 회원국 내에서는 EU의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만 거래되도록 유도할 계획
- (대상) 용량이 2kWh 이상인 모든 산업용·자동차용 배터리
  - (세부 내용) △재료 원산지, △탄소 발자국,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배터리 내구성, △용도 변경 및 재활용 이력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EU가 요구하는 안전사항 및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도 충족해야 함
  - (형태) 상호 접근이 가능한 개방형 전자시스템으로, 온라인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배터리 이해 당사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 관리, 탐색,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의 기술적 구현

- 배터리 여권의 기술적인 구현 방법에 대해서는 배터리 제조업체와 솔루션 전문가들이 논의 중이며, 이미 일부 시범 사례들이 상용화되기도 했음

1) 순환경제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2) GBA(Global Battery Alliance: 100여개 EU, 非EU 기업, 각 기관이 '30년까지 경제·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배터리 가치사슬 구축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결성한 민간 협력단체)가 '20년말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처음 제안함

〈배터리 여권의 기술적 구현 사례〉



● 주요국 대응

- (독일)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배터리 여권 플랫폼 개발에 착수함

- BMW, 유미코어(Umicore), 바스프(BASF) 등 11개 기업이 컨소시엄 구성
- EU 배터리 여권 구현을 위해 '배터리 패스(Battery Pass)' 프로젝트 개발

- (일본) '일본식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 설계안을 제시함

- 민간 주도의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BASC)가 주도
- EU 배터리 여권이 Gaia-X 클라우드 상에 Catena-X 시스템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호환성과 확장성을 갖춘 플랫폼 설계안 구축

- (중국) '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EVMAM-TBRAT)'을 구축해 활용 중

- 2021년 1월 기준 406만 7천대 이상의 신에너지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2021년 8월부터는 배터리 재사용 관련 기업의 배터리 정보 입력이 의무화됨에 따라 배터리 이력 정보도 빠르게 축적될 전망

Germany Launches World-First Battery Pass Project



● 시사점

- 주요 제품의 생애주기 정보 및 이력추적 관리 플랫폼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순환경제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서 우리나라도 조속히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이력 추적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만큼, 이력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면 다양한 상품의 공급망 관리 효율화와 ESG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디지털 이력추적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공급망 내 참여기업들은 재활용 및 ESG 이행 노력을 확대해야 함

◆ 최근의 환경 트렌드는 '디지털 순환경제 시스템'으로서 향후 EU는 배터리뿐 아니라 모든 물리적 (Physical) 상품에도 '디지털 상품 여권'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됨

- EU는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제(EU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를 발표(22.3)하고 '디지털 상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을 시행하기로 공표함
- 동 규제안에 따르면 모든 물리적 상품은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원재료 비율, △탄소 발자국이 환경규제에 부합해야 함
- 해당 정보는 제품의 포장, 라벨, 웹사이트 또는 설명서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한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특별기고(전략물자관리원) :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1편 (Inbound)

※ 최근 美-中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해외직접투자 관련 기술 유출, 국가안보 우려가 확대되며 미국·EU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우리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미국 투자심사 제도〉

26호 : 미국 국내 투자(Inbound)

27호 : 미국 해외 투자(Outbound)

### ● 美 외국인투자 심사 주요 연혁

-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對美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규제 근거 마련
- 1970년대 카터 행정부 시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심사에 대해 중립적 입장 견지<sup>3)</sup>
- 1975년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적격심사 및 규제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설립  
\* CFIUS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1980년대 들어 일본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경제안보·산업보호를 위한 투자심사가 이슈화<sup>4)</sup>  
\* 당시 日 Fujitsu는 미국 반도체 회사인 Fairchild의 주식을 80% 이상 보유하여 미국 반도체 시장 위협
-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위원에 국토안보부 장관 포함

#### 〈 美 외국인직접투자 근거법 주요 연혁 〉

195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국방물자생산법 (DPA)	행정명령 11858	엑슨-플로리오법 (Exxon-Florio Amendment)	외국인투자법 (FINSA)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
· 對美 외국인투자 규제 근거 마련	· 외국인투자를 심사하기 위해 범정부 조직으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설립	· 국가안보에 대한 '잠재적 영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	· 합병, 취득, 인수 등을 통한 '지배적 투자'를 심사 기준으로 추가 · CFIUS가 45일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 강화	· 핵심 인프라기술 민감 데이터 분야 비지배적 투자에 대한 심사 확대 · 부동산 취득도 투자 심사 범위에 추가

### ● 美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 「국방물자생산법」 721조<sup>5)</sup>에 따라 對美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리스크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의회로 제출
- CFIUS 설립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금지·철회 등 규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對美 투자를 통한 기술·인력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 중

#### 〈 외국인직접투자심의위원회 주요 규제조치 〉

시기	인수기업	인수대상기업	규제사유	규제조치
1990.2	CATIC(중국항공기수출입유한책임공사)	MAMCO	· 美 항공기술 접근 및 군사적 이용 가능성	투자철회
2012.9	Ralls(中 Sany그룹 자회사)	오레곤주 4개 풍력발전소	· 美 첨단 무기시스템 정보유출 가능성	투자철회
2017.9	Canyon Bridge Capital(中 사모펀드)	Lattice Corp	· 중국기업의 첨단기술 접근 우려	인수금지
2018.3	Broadcom(싱가포르 업체)	Qualcom	· 5G 기술 관련 中 시장지배력 확대 우려	인수금지
2020.3	Beijing Shiji Information Tech	StayNTouch	·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 수집 우려	투자철회

3) U.S. Congres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1979). The Operations of Federal Agencies in Monitoring, Reporting on, and Analyzing Foreig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4) "Statement o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y" The Public Papers of President Ronald W

5)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Sec 721(m) 'Annual Report to Congress'

● **美 외국인투자 심사 절차**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외국인투자 심사는 총 4단계로 구성 → 외국인투자로 인한 국가안보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위험을 완화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외국인직접투자 심사 단계 〉

<b>①심사개시</b> (Application : 30일) 투자거래 당사자가 자발적 통지, 특별한 경우 의무적 신고 필요
↓
<b>②검토</b> (Review : 45일) 투자 안보, 핵심 인프라, 리스크 등 평가(위험·취약성 등)
↓
<b>③조사</b> (Investigation : 45-60일) 주요 쟁점 검토·협외, 이슈 검토, 허가조건 부여
↓
<b>④대통령 결정</b> (15일 이내) 투자 거래 정지·금지, 완료된 거래에 대한 투자 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 개시 후 리스크가 없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음</li> <li>▶ 리스크가 있을 경우 서면신고 요청 또는 일방적 검토 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정보국장의 분석 기간 30일 포함</li> <li>▶ 리스크가 없는 경우 추가조치 없음, 리스크 해소되지 않을 시 조사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15일 연장 가능</li> <li>▶ 특별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 결정을 대통령에게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명확한 판단 전제</li> </ul>

● **최근 동향**

- 최근 미국은 美-中 기술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하여 **주요 동맹국(G7, 쿼드 등)과의 외국인투자심사 협력 강화** 중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EU는 첨단기술과 국제무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하여 양자간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기구인 美-EU 무역기술위원회(TTC) 발족<sup>6)</sup></li> <li>▶ TTC 內 외국인투자 심사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마련하여 양국 투자심사 제도, 외국인투자 관련 위협, 모범사례 등 공유</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최근 “경제안보추진법안”을 마련하고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sup>7)</sup>하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외국인투자 심사 협력 강화</li> </ul>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외국인투자 심사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li> </ul>

〈 美 외국인투자심사 협력 주요 경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3월, 일본-EU-미국 간 정보공유를 통한 외국인투자심사 협력 합의</li> <li>• 2018.7월, EU-미국 간 무역통상과 투자이슈를 다루기 위한 워킹그룹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심사와 수출통제에 관한 양자협력 강화, 사례공유, 정보교환 등</li> </ul> </li> <li>• 2020.4월, G7(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EU·미국) 외국인투자 심사 프로세스 논의</li> <li>• 2021.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외국인투자 심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합의</li> <li>• 2021.9월,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1차 회의(외국인투자 스크리닝 협력 논의)</li> <li>• 2022.5월, ‘한-미 정상회담’, 외국인투자심사에 관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li> <li>• 2022.5월,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2차 회의(외국인투자 심사의 메커니즘 구축 사례 공유)</li> </ul>
--

● **우리기업 對美 투자 유의 사항**

- 美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투자 신고통지 절차 속지<sup>8)</sup>, 미국 당국이 제기 가능한 잠재적 안보 우려 사항, 관련 사업의 지분통제권이 미국이 우려하는 국가 등에 귀속되어 있는지 여부 등 사전 확인 필요

6) [전략물자관리원 이슈리포트 2021-28] 미-EU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설립 합의 (2021.9.10)

7) [전략물자관리원 이슈리포트 2022-44] 日 「경제안보추진법(안)」 제정 최신 동향 (2022.4.21)

8)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the-committee-on-foreign-investment-in-the-united-states-cfius>

## GVC 소식통 ①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도쿄(일본)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사항 지속 →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노선	출발예정일(매주)	예약마감일	서류/화물(입고)마감
인천(ICN) → 독일(FRA)	수요일	화요일 12:00	화요일 16:00 이전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6:00 이전
인천(ICN) → 도쿄(NRT)	화요일	월요일 12:00	월요일 15:00 이전
	금요일	목요일 12:00	목요일 15: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전용 스페이스: 편당 3톤 내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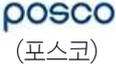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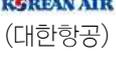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닐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몸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삼성 SDS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삼성SDS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한국무역협회 기업 물류 지원사업〉

기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해상운송]																		
 (포스코)	벌크화물 수출 회원사	<b>[중소기업 벌크화물 합적·운송]</b> • 지원 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제품) or 포워더 • 가능품목: 코일·판재류·선재 등 (이외 품목은 추가 확인 필요)	포스코 수출물류 합적 플랫폼 (www.steel-n.com) <b>사업안내 바로가기</b> ① 플랫폼 회원가입 ② 가입승인(포스코) ③ 합적 신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출항지</th> <th>도착지</th> </tr> <tr> <td>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td> <td>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td> </tr> </table> • 내륙운임: 수출기업 부담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현대글로벌비스)	Breakbulk화물 수출 회원사	<b>[자동차운반선(RORO) 활용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b> • 지원 대상: Breakbulk 화물 수출 중소기업 or 포워더	신청서 작성/제출 (logistics01@kita.or.kr) <b>사업안내 바로가기</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출항지</th> <th>도착지</th> </tr> <tr> <td>광양항, 마산항, 평택항</td> <td>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td> </tr> </table> ※ 운송신청 화물에 대한 현대글로벌비스의 추가 확인 후 합적·운송 실시 ※ 신청 화물에 대한 선적 확정 시, 출항·선적일정 개별 공지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항공운송]																		
 (대한항공)	항공화물 수출 회원사	<b>[중소 수출기업 전용 스페이스 제공]</b> • 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포워더 신청불가) • 가능 품목: 일반 화물 (특수화물 불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b>사업안내 바로가기</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노선</th> <th>출항일</th> <th>예약 마감</th> <th>서류/화물 (입고)마감</th> </tr> <tr> <td rowspan="2">인천 → 로스앤젤레스</td> <td>수요일</td> <td>월요일 12:00</td> <td>화요일 12:00 이전</td> </tr> <tr> <td>일요일</td> <td>목요일 12:00</td> <td>금요일 12:00 이전</td> </tr> </table>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복합운송]																		
 (LX판토스)	컨테이너 화물 수출 회원사	<b>[유럽·러시아항 해상·철도 복합운송 선복지원 및 운임할인]</b> • (신규) 8~9월 러시아항 추가 운임 할인 • 지원 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 신청불가) • 가능 품목: 20피트·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LCL 불가) ※ 단, TCR 노선은 40피트 컨테이너만 가능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b>사업안내 바로가기</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3">해상+철도 복합운송</th> <th>내륙운송</th> </tr> <tr> <th>노선</th> <th>출발지</th> <th>도착지</th> <th>최종도착지</th> </tr> <tr> <td rowspan="2">TCR</td> <td rowspan="2">인천/평택</td> <td>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 rowspan="2">유럽 전역</td> </tr> <tr> <td>러시아 모스크바</td> </tr> <tr> <td>TSR</td> <td>부산</td> <td>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모스크바 인근</td> </tr> </table>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러시아 모스크바	TSR	부산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러시아 모스크바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모스크바 인근															
[물류 보관]																		
 (칼트로지스)	컨테이너 화물 물류센터 보관 희망 기업	<b>[부산신항 물류센터 보관장소 제공 및 요금 할인]</b>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b>사업안내 바로가기</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th> <th>서비스 내용</th> <th>여부</th> <th>비고</th> </tr> <tr> <td>1</td> <td>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td> <td>불포함</td> <td>수출업체가 포워더/운송사 통해 직접수배</td> </tr> <tr> <td>2</td> <td>물류센터 상하차</td> <td rowspan="2">포함</td> <td rowspan="2">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td> </tr> <tr> <td>3</td> <td>물류센터 보관</td> </tr> <tr> <td>4</td> <td>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td> <td></td> <td></td> </tr> </table> ※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 (특수 컨테이너 문의 필요) ※ 장기보관 희망 시, 보관일 관련 사전 협의 필요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해상화물) ☎ 02-6000-7617/5754 / logistics01@kita.or.kr  
 (항공화물) ☎ 02-6000-5754 / hjo117@kita.net



## GVC 소식통 ② :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세미나 개최 소식

### ● 2022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 공급선 발굴 상담회

- 한-중남미 역내 국가 간 수교 60주년 기념, IDB(미주개발은행) 협업을 통하여 **경제안보 핵심품목인 광물 등 생산·수출 중남미 현지 기업과 해외 공급선 발굴을 희망하는 우리기업 간 상담 지원**

- 주최/주관 :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 / KOTRA, 수출입은행
- 일시/장소 : 9월 30일(금) / 그랜드 하얏트 서울
- 신청기한 : 9월 15일(목) 限
- 사업내용 : 중남미 현지 광산개발업체, 광물생산/판매회사, 광물 트레이더(종합상사, 오프테이커, 광물 전문 트레이딩 업체 등), 아르헨티나 등 국가 내 주(州)정부 관계자 등 현지 광물 수출 관계자와 광물 소싱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간의 비즈니스 상담회

※ 상담회 참가 확정 중남미 기업/기관 (세부 기업 정보는 참가신청 링크 첨부파일 확인 요망)

국가	기업/기관명	對한국 수출 등 비즈니스 가능 품목
멕시코	IGNEOUS (KNZ Group)	형석
브라질	Lion Mining	흑연 / 철강괴 / 석회석
아르헨티나	Minera Santa Rita S.R.L.	붕산 / 리튬(오프테이크 계약 통해 안정적 공급 받고자 희망하는 투자 파트너 발굴 희망)

- 참가신청 : [2022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 공급선 발굴 상담회\(클릭\)](#)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첨부)참가 신청서 작성하고 **기업 소개서, 제품 카탈로그(영문)** 등을 첨부
- 참고사항 : 비즈니스 서밋 공식 홈페이지도 <https://korea-lac.com> 참고 요망  
- 공급선 발굴 상담회 외 그린에너지, 스마트SOC 등 분야 수출상담회도 추진 예정인바, 관심 기업은 아래 문의처로 개별 문의 바람
- 문의처 : KOTRA 공급망모니터링팀 정은정 과장 ☎ 02-3460-7759 / [cocoej@kotra.or.kr](mailto:cocoej@kotra.or.kr)  
KOTRA 공급망모니터링팀 김수빈 사원 ☎ 02-3460-3256 / [subin0320@kotra.or.kr](mailto:subin0320@kotra.or.kr)

### ● 2022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희망하는 국내기업 대상 포럼 및 상담회 개최

- 일시/장소 : 9월 20일(화)~22일(목) / 콘래드 서울 호텔
- 신청기한 : 9월 8일(목) 限
- 참가신청 : [2022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클릭\)](#) 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시 홈페이지 연결 (상담회)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입력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및 (포럼 및 설명회) 참석자 정보 입력
- 참고사항 : 1일차 9.20일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 포럼과 초청 발주처 중 분야별 유망 프로젝트 설명회, 2일차 9.21일 프로젝트 상담회(발주처 및 바이어 50개사 규모) 진행
- 문의처 : KOTRA 그린산업팀 임현정 대리 ☎ 02-3460-7493 / [hjlim1023@kotra.or.kr](mailto:hjlim1023@kotra.or.kr)



##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는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산업분석실**(무역협회 담당),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 담당) 등 3개 실을 두고, 3개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b>한국비철금속협회,</b> <b>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b> <b>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b> <b>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b> <b>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b> <b>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b>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b>한국수입협회 (4)</b>
에너지		<b>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b> <b>한국석유공사 (3)</b>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b>대외경제정책연구원,</b> <b>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b>

###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mailto: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 글로벌 경제지표('22. 8. 31. 수)

## [환율]

	'20.12.31	'21.12.31	'22.7.31	'22.8.26	'22.8.29	'22.8.30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299.10	1,331.30	1,345.40	1,346.70	+0.10%	+13.28%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99.00	1,331.20	1,349.70	1,346.40	-0.24%	+13.14%
₩/CNY	166.04	186.51	193.35	193.98	195.22	194.79	-0.22%	+4.44%
₩/¥100	1,051.19	1,032.48	979.94	972.32	973.26	972.35	-0.09%	-5.82%
Y/U\$	103.34	115.14	132.57	136.92	138.75	138.75	+0.00%	+20.51%
U\$/EUR	1.2279	1.1318	1.0247	0.9962	0.9931	1.0000	+0.69%	-11.65%
CNY/U\$	6.5305	6.3681	6.7419	6.8613	6.9191	6.9139	-0.08%	+8.57%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8.29 (전일)	'22.8.30				
					전일(8.29)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100.20	102.80	▲2.6 +2.6%	▲52.8 +105.4%	▲25.7 +33.3%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01.80	97.60	▼4.2 -4.1%	▲10.3 +11.8%	▼23.2 -19.2%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8,315.00	7,910.50	▼404.5 -4.9%	▲155.0 +2.0%	▼1,781.5 -18.4%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495.00	2,406.50	▼88.5 -3.5%	▲455.0 +23.3%	▼399.5 -14.2%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1,510.00	21,385.00	▼125.0 -0.6%	▲5,478.0 +34.4%	▲460.0 +2.2%

## [반도체]

	'20	'21	'22.5	'22.6	'22.7	8.25	8.26	8.29	8월(~29)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42	3.37	3.11	2.64	2.62	2.61	2.78
(YoY)	-21.9%	+8.0%	-23.6%	-25.4%	-31.6%	-34.3%	-34.3%	-33.8%	-33.6%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8.25	8.01	6.83	6.58	6.58	6.58	6.57
(YoY)	+7.0%	+32.8%	+33.7%	+23.0%	+1.4%	-4.4%	-4.4%	-4.4%	-4.2%

##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8.5	'22.8.12	'22.8.19	'22.8.26		
						전주(8.19)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3,739.72	3,562.67	3,429.83	3,154.26	-8.0%	-37.5%

##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7.29	'22.8.23	'22.8.24	'22.8.25	'22.8.26		
							전일(8.25)비	'21년말비
BDI	2,217	1,895	1,271	1,213	1,123	1,082	-3.7%	-51.2%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협력기관

